

2019년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광 명 시 의 회

<목 차>

1. 방문개요	4
○ 방문목적	4
○ 방문기간 및 방문지역	4
2. 방문내용	5
[1] 상해지역과 한국독립운동	5
○ 개요	5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6
○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홍커우 공원)	8
[2] 가흥지역과 한국독립운동	9
○ 개요	9
○ 김구 선생 피난처	9
○ 임시정부 요인거주지	10
[3] 항주지역과 한국독립운동	11
○ 개요	11
○ 임시정부 청사 옛 건물	11
[4] 서안지역과 한국독립운동	13
○ 개요	13
○ 광복군 제2지대의 OSS훈련지	14
○ 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 표지석	15
[5] 문화체험 활동	16
○ 진시황릉	16
○ 병마용	17
○ 화청지	17
3. 탐방소감	18

2019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방문 개요

□ 방문목적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혹독한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국외 항일운동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방문기간 및 방문지역

- 기 간 : 2019. 12. 18.(수) ~ 12. 22.(일) 4박 5일
- 참가인원

구분	직 위	성 명	비고
4박5일	운영위원장	박 덕 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창 록	
	의 원	이 일 규	
	전문위원	엄 기 목	
	의사팀장	박 태 수	

- 방문국가 : 중국(상해, 가흥, 항주, 서안)
- 주요 방문지
 -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윤봉길 의사 의거지 (홍커우 공원)
 - 김구선생 피난처(梅灣街 76호) 및 임시정부요인 거주지(日暉橋17호)
 - 광복군 제2지대 OSS훈련장소 및 제2지대 주둔장소

- 광복군 총사령부 주둔지, 한국청년전지공작대구지 방문

- 일 정

일 자	지역	세부일정	비 고
12/18(수)	인천 상해	인천→상해 상해임시정부 및 홍커우 공원 등 방문	
12/19(목)	가흥 항주	상해→가흥 (2시간소요) 김구선생 피난처 및 임시정부요인거주지 방문 가흥→항주 (2시간소요) 항주임시정부청사 및 임시정부요인거주지 방문	
12/20(금)	항주 서안	항주 → 서안 광복군제2지대OSS훈련장소 및 표지석 참배 광복군총사령부주둔지 등 방문	
12/21(토)	서안	소안탑(서안박물관), 팔로군기념관 탐방 및 진시황릉, 병마용 등 방문	
12/22(일)	서안 인천	서안성벽 관광 서안 → 인천	

II. 방문 내용

1. 상해지역과 한국독립운동

□ 개요

- 상하이는 북위 31도 14분, 동경 121도 29분에 위치해 있다. 중국 해안선의 중간 지점으로, 바다로 이어지는 장강 입구에 위치한다. 상하이 시 북쪽에는 장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항저우 만과 접해있으며 서쪽에는 장쑤 성과 저장 성이 위치해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자 국제도시이다. 또한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하던 교통도시이기도 하다. 제2차 아편전쟁 후 1860년 텐징조약이 체결되어 상하이와 텐지에 서구 열강들의 치외법권 지대인

조계가 허용되었다. 처음 영국, 미국, 프랑스가 각각 상하이에 조계를 설정하였고, 나중에는 영미의 공공조계와 프랑스의 프랑스 조계로 정리되었는데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는 중국의 공권원력이 미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어서 비밀활동이 이곳에서 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에 1910년을 전후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 상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중 신규식 선생은 중국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한 숨겨진 주역이며, 국력 배양과 민중 계몽 등 자립기반 확충 운동을 총체적으로 전개한 애국자였다

당시 세계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면서 독립운동의 2대 조류인 외교중심론과 무장투쟁론이라는 두가지 운동노선을 접목시켰다. 혁명가적 열정과 선각자적 혜안을 함께 갖춘 선생은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 송교인(宋教人), 진기미(陳其美), 손문(孫文) 등과 교류하며 중국신해혁명에 외국인으로 참여하여 나중 중국국민당정부와의 항일연계투쟁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1912년 동제사를 조직했으며 1917년에는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고, 1918년에는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해외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외교·군사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인성학교, 한국노병회, 구국모험단, 대한교민단, 한국독립당 등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다가 1932년 4월 29일 한민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홍커우공원 의거 직후 항저우로 이동할 때까지 상하이는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1926 ~ 1932)

- 1919년 상해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으며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다

중국 상하이 황포구 마당루(路) 푸칭리 4호의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사용한 마지막 청사이다.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13년간 프랑스 조계 안에 청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나 수색을 피해, 또는 재정적인 문제등으로 여러 곳으로 청사를 옮겨 다니다가, 안정적인 청사를 마련한 것이 바로 푸칭리 4호 청사이다. 임시정부는 1932년 5월 초 항저우로 이전할 때까지 6년동안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한국정부와 상해시의 공동조사와 복원작업을 통해 1993년 일제 강점기 활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 현재는 상해시 황포구 인민정부의 관리 하에 “황포구 문물 보호 단위 제174호”로서 우리정부와 중국정부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 속에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청사 건물의 1, 2층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복원되어 있고 2층에는 김구 선생의 집무실 겸 침실, 임시정부 요인들의 집무실 및 숙소가 복원되어 있었다. 3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탄생할 때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최초로 사용했던 청사 사진과 독립선언서, 국민대회 취지서 및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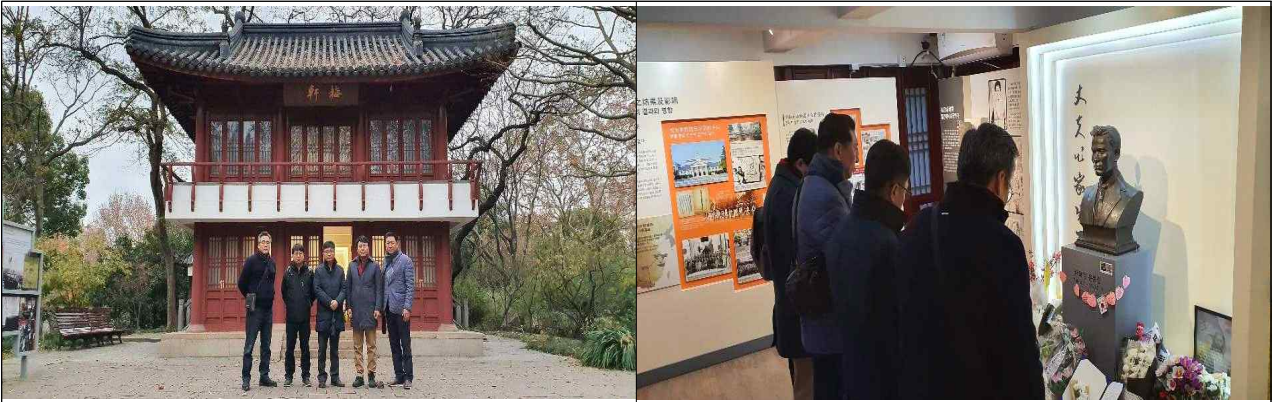


□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홍커우 공원)

○ 1930년 2월 중국 상해 건너가 한민애국단에 가입한 후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및 상해사변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홍구공원에 들어가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등을 즉사시키고, 일본 제3대 사령관 노무라, 제9사단장 우에다, 주중일본고사 시게미쓰 등 일제의 군부와 정관계 수뇌부 7명을 처단한 의거 현장이다. 공원 내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여 처음에는 매정이라는 기념관이 1994년 건립되었고, 1998년에 매정기념관에서 약300여미터 정도의 거리에 “윤봉길의사의거 기념비”가 건립되었다.(2009년 매정에서 매현으로 기념관 이름 변경)

○ 매현기념관에는 2003년 12월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윤봉길의사에 대한 각종 기념활동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1998년 상해 매언기념관에 윤봉길 의사 사적비를 제막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상해의거 현장을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매현기념관과 기념비가 있는 장소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현장은 아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현장은 현재 루쉰의 동상이 있는 앞 광

장, 즉 철책으로 둘러있는 잔디광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2. | 가흥지역과 한국독립운동

□ 개요

- 가흥은 저장성 북부 경향대운하 연안에 위치한 물의 절북(浙北) 평원의 수향(水鄉) 공업도시이다. 가흥전구(嘉興專區)에 속하며 항저우시 북동쪽 약 80km, 양쯔강 삼각주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후왕철도(상하이~항저우)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춘추시대에는 취리, 진나라때에는 곡권현, 오나라 때에는 화흥, 가흥현으로도 불렸으나. 1979년에 지금의 가흥시로 승급했다. 1932년 4월 상하이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이전하여 청사를 항저우에 두었지만 일제의 감시나 정보망을 피해 가흥의 난후나 난징에서 국무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김구 선생 피난처(매만가 76-4호)

- 가흥 남문에 위치한 매만가 76호는 저보성의 수양아들 진동생 소유의 2층 목조건물이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이후 미국인 목사 피치의 집에 피신해 있던 김구 선생이 1932년 5월 가흥으로 피신하여 일제의 계속된 추격을 피하여 몸을 숨기고 있던 곳이다. 김구선생은 2층을 침실로 사용하고 침대옆에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배를 타고 호수로 피신하곤 하였다.

장진구 혹은 장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처녀 뱃사공 주아이 바오와 함께 선상생활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저장성 주석을 지낸 추푸청의 수양 아들인 첸둥성의 별채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1995년의 가흥시 인민정부에서 내부를 보수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생활하던 당시 모습대로 재현해 놓았던 것을 2001년 12월 독립기념관과 광복회, 가흥시 인민정부의 지원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등 새롭게 개·보수하였다.

□ 임시정부 요인거주지(일회교 17호)

-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폭탄의거 직후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주푸청 선생의 도움으로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이동녕·이시영·송병조·민필호·조성환·조완구·박찬익·엄항섭·김의한 선생 등과 그 가족들도 가흥으로 피신하여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일회교 17호는 김구 선생이 피신하여 있던 매만가 75호와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 일회교 17호 건물은 청조 말년에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졌다. 2층건물로 네칸의 방과 마당이 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할 당시에는 1층은 회의실이나 주방으로, 2층은 요인과 가족들의 침실로 사용되었다. 현재 1층은 전시실로 사용되고, 2층은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복원해놓은 침실로 꾸며져있다. 총 부지면적은 904㎡이며, 전시면적은 332.5㎡이다. 1995년 가흥시가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사진 및 당시 사용했던 물품 등을 전시하였다. 2001년에 다시 가흥시와 한국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대대적인 내부보완 작업에 착수하여 전시자료를 대폭 교체하는 작업을 마치고 12월에 새롭게 개관되었다.



3. | 항주지역과 한국독립운동

□ 개요

- 항주는 임시정부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 투탄의거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싱(嘉興)을 거쳐 저장(浙江)으로 들어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저우(杭州)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군무장 김철이 머물던 청태 제2여사를 청사로 사용하다가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장생로 호변촌 23호에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저우(杭州)에 머물던 약 3년의 시기는 임시정부의 최대의 시련이기도 하였다 상해 의거 직후 발생한 항주사건으로 국무위원이 사퇴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의 민족단일당 결성운동이 구체화되면서 송병조, 차리석 선생 두명 만으로 임시정부가 유지되는 일도 있었다. 임시정부청사는 항저우에 있었지만 임시의정원회의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자싱(嘉興)의 난 후나 난징 등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항저우에는 임시정부 청사 사적지 3곳과 한국독립당 사무실 등의 유적지가 남아있다.

□ 임시정부 청사 옛 건물(청태 제2여사, 오복리 2가 2호)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도착하여 첫 번째로 사용한 임시정부 청사가 청태 제2여사이다. 청태 제2여사는 여관이었는데 상

하이를 떠나 항저우로 미리 피신한 임시정부 국무부장 김철 선생은 1932년 5월 이곳 32호실에 머물고 있었었다. 임시정부가 홍콩 의거 직후 항저우로 급히 이동하는 관계로 김철 선생이 머무는 이곳을 임시정부청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사가 여관이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기밀유지에 문제가 많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전하게 된다.(약 5개월 체류)

항주의 서호에 인접한 호변촌 23호로 이동해 새 청사를 마련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당들도 항주로 이전을 하였는데 한국독립당은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원들이 만든 임시정부의 기초세력이자 여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조직이었다. 항주에서의 한국독립당의 흔적은 ‘사홍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호수가 적혀 있는데 ‘사홍방 40호’는 한국독립당 사무실로 사용을 하였고 ‘사홍방 41호’에서는 한국독립당 기관지 ‘진광’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콩공원 의거 이후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이동한 임시정부는 항저우 안에서도 두차례나 거처를 옮겨야 했다. 두 번째 거처는 서호에 인접한 호변촌 23호로 이 지역은 무엇보다 많은 세대가 살고 있던 주택가라 외부의 눈길을 피하기에 용의했다. 하지만 워낙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터라 회의는 가흥이나 남경(난징) 등에서 열었다.

1934년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무실 이전 결정을 내렸고, 1934년 11월 28일에 임시정부 판공실을 호변촌 23호에서 오복리로 이전했다.



4. 서안지역과 한국독립운동

□ 개요

○ 서안은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창설하는데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했던 지역이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중국내 세력확장에 따라 화북지역을 점령한 일본군과 최전선을 이루던 지역으로 20여만명의 한인이 이주해 살고 있었다. 이런 요인으로 광복군 창설 요인으로 한인을 대상으로 병력을 모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화북지방과 만주지방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로서 적절한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미 광복군 창설 1년 전인 1939년 10월 1일 국무회의 결의로 이곳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초모, 선전활동을 전개하면서 서안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서안으로 광복군총사령부 이전을 결정하여 광복군 창설 직후 대일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항일전선에 근접한 서안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했던 것이다. 당시 1년만에 병력 3백여명을 확보했고 기관지 광복을 발간하여 선전과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 서안에 있던 한국광복군 제2지대는 1942년 4월, 초기에 편성되었던 제1지대와 제2지대 제5지대를 통합하여 새로이 편성되었다. 지대장은 참모장 이범석 장군 이었다. 제2지대는 성립 직후 서안 시내 이부가 4호의 총사령부와 함께 있다가, 총사령부가 1942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해 간 후 서안시 교외에 있는 두곡으로 옮겼다. 제2지대는 총무조와 정훈조로 구성된 지대본부와 산하에 3개 구대를, 각 구대에는 3개 분대로 조직되어 있었다. 제2지대는 서안을 거점으로 화북지역에 이주해 있던 한인청년들을 모집하는 초모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병력을 확보하면서 광복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다. 1945년 4월 군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제2지대는 장교 28명, 대원 122명, 사병 35명 등 185명이었다. 그리고 1945년 5월부터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와 연계하여 OSS훈련을 받고, 국내진입작전을 계획하였는데, 일제가 패망의 길을 접어든 1945년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과 미국전략정보처(OSS)의 합의로 ‘독수리작전’이란 암호명의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정예요원들로 하여금 약 3개월 동안 특수 활동에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국내진공작전을 실행하려고 하던 중 일제가 무조건 항복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 서안에 있는 서안광복군사령부 터나 한국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 터는 모두 사라졌다. 이범석 장군의 숙소나 중앙군관학교 제7분교 터는 다른 목적의 건물들로 변모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나 군사특과단주둔지, 한국청년훈련반, 한미군사협정체결지, 한국광복군 제2지대 OSS훈련 장소, 보계수용소 등도 없어졌거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변했다. 지금은 서안 장안현 두곡진에 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유적지는 도시개발로 사라지고 없다.

□ 광복군 제2지대의 OSS훈련지 (미타고사)

- 한국광복군 제2지대의 OSS훈련지는 그동안 종남산 일대로 막연히 알려지거나, 종남사로 전해져 왔다. 그런데 종남산은 왕곡의 뒤편에 자리한 종남산맥의 일부분인 남오대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두곡에서 동남쪽으로 40여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OSS 훈련 장소인 종남사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그곳에

는 현재 미타고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현지인들도 미타고사 근처에서 한국광복군이 훈련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OSS훈련 장소는 제2지대 본부가 있는 두곡으로 결정되면서 '독수리기지'가 되었으며, 남오대산의 미타고사 근처에 훈련장을 설치하였다. 싸전트를 책임자로 실시한 OSS 훈련은 50명을 단위로 3개월 과정의 훈련에 들어갔다. 1945년 8월 4일 제1기생 훈련이 완료되었다.



□ 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 표지석

- 1942년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했던 시안시 창안(長安)구 두취진(杜曲鎮)에 광복군 제2재대 주둔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제2지대 본부가 있던 곳은 현재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인 두곡양참이 들어서 있고 옛 건물은 모두 헐려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광복군 표지석은 높이 1.8m, 폭 1.1m로, 빨간색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5.1m 높이의 정자 안에 세워졌다. 공원 부지 등을 포함한 전체 기념시설은 약 600평 규모이며 표지석 주위로는 아담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무궁화 나무도 심어져 있어 나라사랑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꾸며져 있다.

표지석 전면에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 옛터 1942년-1945년'이라는 금색 문구가 중국어로 새겨졌다.

뒷면에는 “한중 국민이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압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기념하고, 항일 승리에 기여한 바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문구 등 광복군의 항일 투쟁 활약상 등이 한국어, 중국어로 병기됐다.



5. 문화체험 활동

□ 진시황릉

-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으로 동서 485m, 남북 515m, 높이 약 76m의 거대한 능이다.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진시황본기(本紀)>에 의하면 시황제 즉위 초부터 착공되어 중국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는 70여만 명이 동원되어 완성되었고, 내부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드는 등 천상과 지상을 모방한 지하 궁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세계 10대 수수께끼’의 하나로 꼽히는 진시황릉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제의 묘지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의 도읍지인 함양땅인 산시성 시안에서 30km 떨어진 동현의 원산원에 자리하고 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병마용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마용갱(兵馬俑坑)은 1974년 봄, 우물을 파던 그 곳의 이(李) 씨라는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1974년 1호 갱 발굴 후 지금까지 3호 갱까지 발견되었고 각 갱마다 조성된 박물관에는 모두 8,000여 개의 병마용과 100여 개의 전차(戰車), 그리고 400여 개의 기마상이 전시되어 있다.

이 병마용들은 진시황 친위군단의 강력한 위용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나라의 군사편제 · 갑옷 · 무기 등의 연구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의 8대 경이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이 병마용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화청지

- 즉 화청지는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여산(驪山)에 있는 온천지다. 유적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곳의 온천을 이용한 것은 약 6,000년 전부터라고 한다.

화청지는 당(唐)나라 현종(玄宗)과 양귀비가 생활했다는 당나라 왕실 원림으로 유명하다. 화청지라는 이름도 당 현종이 이곳에 궁을 만들어 화청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한다.

아울러 화청지는 1936년 시안사변의 장소로 중국역사에 있어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진시황릉



화청지

III. 탐방 소감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우리 선조들이 일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망명정부이다.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 중국 내륙 깊숙이 숨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다. 나라잃은 백성에게 망명지 중국 땅은 멀고도 험난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백범 김구, 독립운동가, 그 가족들은 27년간 상하이에서 충칭 까지 여러 도시를 거치며 5.000km가 넘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이어가야만 하였다. 이처럼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혹독한 가시밭길을 걸었으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독립이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퍼져 나간 이후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주, 하와이로 투쟁의 무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해외 독립 투쟁여정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27년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정치·외교 활동은 일제 공습을 피해 최대한 몸을 숨기며 어렵게 생활하였지만 고난의 흔적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중국내 개발사업과 우리 모두의 무관심으로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단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어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야 할 것이며, 독립을 위해 항거한 흔적을 찾아 보존하여 나라의 귀중함을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후 느낌 점

박덕수 시의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박5일간 상해·가흥·항주·서안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임시정부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유적을 탐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해서 첫 걸음을 시작해 일제의 패망으로 1945년 11월 고국에 돌아올 때까지 26년 6개월 동안 고난에 찬 투쟁을 계속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라의 독립에 대한 민족적 욕구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본의 감시와 무자비한 탄압으로 국내에는 근거지를 둘 수가 없어 일제식민지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인 상하이에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설립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감시와 탄압의 가중, 그리고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임시 정부의 활동은 점차 침체되어 갔다.

이에 임시정부의 “김구”는 강력한 항일 무력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한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 첫 번째의 거사가 이봉창 의사에 의한 일본 국왕 폭살 기도 사건이었다. 이 의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일제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1930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및 상해사변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군부와 정관계 수뇌부 7명을 처단하였다.

이 의거를 계기로 한국의 독립 운동에 냉담하던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 활동을 승인함으로써 한국 독립군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망명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은 더욱 혹독하고 험난했지만 임시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하이→전장→창사→광저우→류저우→치장→충칭 등 중국 대륙 곳곳을 누비며 1만3천리(5,200km)가 넘는 고난의 길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받아 들였다.

현재 임시정부 설립과 독립운동이 있었던 때가 100여년이 지나다 보니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는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유적지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았을 때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마저 느꼈다. 우리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름 모르는 독립운동가를 단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는 한편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또한 더 찾아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항일 유적지 방문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제창록 시의원

임시정부 100년 전 제국주의 시대 고난과 굴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준 선열들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국가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나의 정신을 다시 돼 새기고자 한다.

일본군과 투쟁함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역량을 전 세계에 전하였으며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여 국가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알 수 있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을 통해 우리 민족의 창의성과 저력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여러 노선과 이념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갈등과 대립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연대와 통일을 지향하여 8.15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사는 한국근대사의 중심이고 민족역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정신적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쫓기는 김구 선생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주푸청 선생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피난살이를 할 수 있었다.

피난처를 복원해놓았지만 그곳은 마치 나치의 체포를 피해 숨어있던 안네의 은신처처럼 은밀한 은신처다 체포의 위협에 쫓기던 김구선생님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한 창문을 통해 본 호수 풍경.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쫓기는 백범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며 밖을 바라봤을까?

나라를 위하여 피난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일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청사(임시정부 청사이므로 “항저우”가 아니

라 “항주”로 표기함)는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상해청사보다 조금 달리 보였다. 물론 전시물과 당시의 상황 설명을 보면 나라 없이 떠돌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부를 이끌면서 동시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는 그들이 겪었던 간난신고(艱難辛苦)는 감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는 하얼빈 731부대는 일본의 잔인함을 알리는 곳으로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장소였다. 대한민국은 영화로 보고 말로 들었던 하얼빈 부대는 세균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은 하얼빈 731부대 희생 국가의 하나였다.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국가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나의 정신을 다시 되 새기고자 한다.

윤봉길의사의 기념관 안에 있는 大丈夫出家生不還(대장부출가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떠나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의 마지막 다짐이 무겁게 다가온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항일 유적지 방문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이일규 시의원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해인데요. 바로 올해가 중국의 1919년 5월 4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5.4운동은 청년, 학생, 시민, 상공인 등이 참여한 시위로 중국 인민들의 제국주의 반대운동의 5.4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사건들이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가 일제강점기 이후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망명정부로, '한국 민족 독립 운동의 성전'이라 불리며 중국과 수교 이래 모든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임시헌장을 공포하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초대총리, 초대 장관급 장관 등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에서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정부 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해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지하행정조직 및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서구 열강을 상대로 외교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6년-1932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프랑스 조계지에 터를 잡는데 이는 일제의 영향력이 덜했고 각국의 공사관이 있어 외교 활동을 하기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6년 7월부터 1932년 4월까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한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청사 상해시 정부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등 한중양국의 협조로 떠난 지 66년만인 1993년 4월 13일에

1차 복원하였고 2001년 12월 건축물을 전면 보수하고 전시 시설을 확장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유적지로 단장하였습니다.

1932년 4월은 윤봉길 의사의 홍저우 공원 의거가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며 눈앞에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근대식 공간이 펼쳐지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을지라도 그 안에 주요 업무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 것에 감탄하였고 김구 선생님 외에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명맥을 이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복원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200만 명 넘게 찾았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도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임시 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따뜻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을 만들어주신 순국선열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역사는 미래의 큰 자산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의 유족을 찾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 보존하여 애국정신의 소중함을 후손에게 널리 알려야함을 배우고 왔습니다.